

내란가담 혐의 조태용 국정원장은 전·현직 직원의 흑색선전 등 불법적 정치관여 의혹을 해명하고 즉각 중단하라

이번 6.3 대선은 ‘내란세력’에게 다시 국가의 운영을 맡길 것인지, 이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과 관련,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2.3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과, √국정원 전직 직원들의 불법적 선거운동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태용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했던 2024년 3월 삼청동 안가 만찬에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 등과 함께 참석,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 조짐을 인지했으며, √12.3 계엄선포 직전에 있었던 소위 ‘계엄관계 장관회의’에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참석하여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 선포계획을 직접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계엄관련 문건’을 건네주고, √이후 국정원으로 복귀해서는 당시 홍장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이 ‘정치인 체포’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보고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조태용 원장 스스로가 헌법수호 임무를 망각한 채 불법 비상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함으로써, 현재 내란가담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원 전 차장, 전 대공수사국장, 전 방첩국장, 전 지부장, 기타 국내 부서 고위 간부 출신 등 여러 명과, √국정원 전직 단체인 ‘양지회’의 주요 간부, ‘양지회’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통일연구원’의 주요 간부, 대공수사국 출신 전직 단체인 ‘덕우회’의 주요 간부 등 다수의 전직들이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SNS 등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유언비어 유포 등 심리전을 전개 중인 정황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에는, 국정원 전직들이 현직과 연계하여 국민의 ‘안보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권 인사의 북한 연계 의혹’ 등을 운운하는 소위 ‘신 북풍’ 문건을 흔들어댈 수 있다는 전·현직 직원의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위해 첩보가 여러 차례 입수되었고, 온라인에서도 신변위해 경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접수된 이재명 후보 테러 기도와 관련한 제보 중에는 실제 그 분야에 근무한 종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의 특수 공작활동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 A부서의 N국장은 지난 12.3 내란에서 이 권한을 남용하여 대북응징 특수부대인 정보사령부 산하 HDD 요원 또는 HDD OB그룹을 은밀하게 동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으며, 현재도 직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이들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N국장은 12.3 내란 준비단계부터 문상호·노상원 두 명의 전 정보사령관과 수시로 소통하였으며, 내란 직전인 지난해 12.2일 그 긴박한 상황 아래서 HID를 비상계엄에 동원하는 임무를 수행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직접 통화했다는 제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HID는 유사시 북파공작, 참수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훈련받은 특수 정예요원들입니다. 만일 이들이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지난 12.3 내란 때처럼 대선과정에 동원된다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이 올 것입니다. 민주당은 조태용 원장의 직접 지시없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방탄조끼를 입고 방탄유리를 세워둔 채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조태용 원장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국정원의 직·간접 지원을 받고있는 전직 단체나 전직 연구단체의 대표·부대표 등 주요 간부들이 김문수 후보 캠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직 국정원 직원이든 간부든 퇴직 이후의 정치활동이나 정책자문 역할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국정원 현직과 연계하여 활동하거나, 전직 단체들이 가짜뉴스 살포, 흑색선전 등 불법적 정치공작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는 큰 선거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당장 중지하기 바랍니다.

둘째,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정원 현직 직원이 전직들과 연계하여 소위 ‘신 북풍’ 문건을 작성하여 폭로할 조짐이 있다는 제보와 관련하여, 과거 이와 유사한 공작을 주도했던 부서를 집중 점검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국정원장은 국정원 A부서 N국장과 관련한 위와 같은 혐의와 제보에 대해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불법적인 돌발사태 발생 차단을 위한 내부감찰을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조태용 원장은 12.3 내란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고, 홍장원 전 1차장이 윤석열로부터 내란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음으로써 국정원을 내란의 수족으로 끌어들이는 점에 대해서 국민께 사죄하고 검·경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검·경의 수사와는 별개로, 국정원장·1차장 외 여타 조직이나 직원들의 추가적인 내란 가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들여다 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전·현직들이 국정원의 기능과 권한을 남용하여 대선에 영향을 미치거나 극단적 행동에 나선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기능과 권한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조정하고, 국정원을 철저히 개혁하게 될 것임을 밝혀둡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12.3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실현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고개를 무사히 넘어가야 우리 국민 모두가 소망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출발점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2025.5.28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내란잔당 선거공작저지단

**상임단장 정성호
공동단장 박선원, 부승찬, 이상식**